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 제1편

살아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9/11의 예언적 의미

Jeff Pippenger

2024-12-18

꽤 오랫동안, 사실 9/11 직후부터, 우리는 산 자들의 심판이 9/11에 시작되었다고 일관되게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성경적 증언들을 통해 이 사실을 이해했으며, 그 증언들은 서로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2023년 7월 이후로 우리는 9/11에 시작된 산 자들의 심판에 관하여, 9/11 직후에 밝혀졌던 것들과 비교해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산 자들의 심판은 9/11에 시작되었습니까? 성경적 산 자들의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밝혀진 것은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시라는 점입니다. 그분은 요한에게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기록하라고 명하셨을 때 바로 그 성품의 속성을 보여 주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요한은 앞으로 올 일들도 함께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시작으로 끝을 보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를 '말씀'이라고 밝힌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시작'을 뜻한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이며, 창세기에서 처음 제시된 진리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다루어진다. 창세기는 알파요, 요한계시록은 오메가이며, 둘이 함께 '말씀'이며, 그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다. 하나님의 서명, 곧 그분의 이름이 성경의 모든 예언 구절 속에 기록되어 있다. 그 서명은 그 구절 속의 빛이 진리임을 확증한다.

어떤 예언 구절의 해석이 하나님의 서명, 곧 그분의 이름, 곧 그분의 품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그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해석할 때 적용해야 할 다른 검증 기준들도 있지만, 어떤 기준을 적용하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사람이 만든 기준이 없으면, 사람이 만든 해석도 더 적어진다. 그렇다면, 왜? 또 무엇인가? 9/11에 시작된 산 자들에 대한 성경적 심판인가?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그는 자신을 시작과 끝이라고 밝히시고, 그 성품의 속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언자 요한을 통해 보여 주신다. 그는 책 전체의 메시지를 자신에 대한 계시라고 규정하신다. 그는 요한에게 당시 그가 살던 세상에 존재하던 것들을 기록하라고 명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요한은 세상 끝에 있을 것을 기록하게 된다. 요한은 기독교 초대 교회의 열두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요한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큰 무리로 대표되는 기독교 교회의 끝을 보여 주고 있다.

성경적 논리는 이렇다: 예수는 말씀으로서 그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은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므로 또한 성경이시기도 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제시되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첫 번째 속성은, 그가 어떤 것의 시작을 통해 그 동일한 것의 끝을 보여 주신다는 점이다. 사람이 성경을 연구할 때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살아 있는 자들의 심판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9/11에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왜 그것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지를 진정으로 알 수 없다.

알파와 오메가의 원칙의 한 예로, 고대 이스라엘은 현대 이스라엘을 예표한다. 이는 '문자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을 예표한다'는 예언적 진리라고도 할 수 있다. 어떻게 표현하든, 고대의 문자적 이스라엘과 현대의 영적 이스라엘 모두 시작의 역사와 끝의 역사를 갖고 있다. 네 가지 역사 가운데 세 가지는 과거에 속하며, 우리는 지금 네 번째이자 마지막 역사 속에 있다.

과거의 세 역사들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세대의 세 증인을 대표한다. 그 세 가지 과거의 역사는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세대를 지목한다. 14만 4천을 다루는 다른 예언적 역사들도 있지만, 14만 4천이라는 수 자체에는 다음과 같은 예언적 상징이 담겨 있다. 곧 14만 4천은 고대의 문자적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현대의 영적 이스라엘의 열두 제자를 곱해 예언적으로 표상된 자들이다.

알파와 오메가의 또 다른 예로,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는 시작과 끝의 역사를 나타낸다. 밀러 운동은 세 천사의 역사에서 시작을 대표하고, 14만 4천의 운동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끝나는 시기의 역사를 대표한다. 알파 운동은 1844년 10월 22일 조사심판의 개시를 선포했다. 오메가 운동은 산 자들의 심판의 개시를 선포하며, 그 시작을 9/11로 특정했다.

영감으로 쉽게 뒷받침되는 알파와 오메가의 세 번째 예는, 처음에는 밀러주의자들의 알파 운동이 있었고 그때 열 처녀의 비유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점이다. 화이트 자매는 The Great Controversy에서 그 비유가 그때 성취되었다는 맥락에서 밀러주의자들의 역사를 밝힌다. 그녀는 또한 십사만 사천의 오메가 운동도 열 처녀의 비유를 글자 그대로 성취할 것이라고 가르친다. 끝을 시작과 동일시하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간단한 세 가지 증거.

고대 이스라엘의 시작에 주님께서서는 문설주에 바른 피로 나타난 바와 같이 히브리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밤중의 외침'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다. 침례는 그리스도와와의 언약적 관계를 상징하며, 바울은 이집트를 떠난 히브리인들이 모두 '구름과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가르친다. 그들이 바다를 건넌 뒤에는 만나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특히 그것이 시험이었다는 맥락에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상징한다.

"만나"는 그들의 첫 번째 시험을 나타내며,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메시지를 거부하여 열 번째이자 최종 시험에 실패했을 때, 주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서 버리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언약을 맺으셨다.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사십 년 동안 태어난 남자들에게는 할례 의식이 행해지지 않았으니, 이는 그 의식이 가데스의 반역 때 중지되었고 입성 직전에 가데스에서 다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알파와 오메가의 표징이다.

광야에서의 40년 방황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메시지에 대한 반역으로 시작되었고, 모세가 반석을 친 반역으로 끝났으며, 그로써 하나님의 성품과 하시는 일을 그릇되게 드러냈다. 고대 이스라엘의 시작은 고대 이스라엘의 끝을 보여 준다.

고대 이스라엘의 말기에, 말라기 3장의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께서는 다니엘 9장을 성취하시며 한 이레 동안 많은 이들과 '언약'을 굳게 하시려고 오셨다. 언약의 사자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옛 언약 백성을 지나치셨던 바로 그 역사 속에서 기독교 교회와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고대 이스라엘의 시작에서도 주께서는 이전의 언약 백성을 지나치시고 새로 택하신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 고대 이스라엘의 끝에서도 그분은 똑같이 하셨다.

언약의 상징은 결혼이며,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서기 70년 예루살렘의 파괴에 이르기까지, 예언은 하나님께서 고대의 문자적 이스라엘과 점진적으로 이혼하심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그 이혼이 실제로 효력을 발한 때는 언제였는가? 그의 탄생 때였는가, 그의 죽음 때였는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때였는가, 아니면 예루살렘이 파괴된 때였는가?

한편 모든 민족의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봉헌된 그 성전을 찾아왔다. 금과 보석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그곳은 아름다움과 장엄함의 장관이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전각에서는 더 이상 여호와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스라엘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결별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의 끝 무렵 성전 안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너희 집이 너희에게 황폐하게 버려졌느니라.' 마태복음 23:38. 그때까지는 그 성전을 자기 아버지의 집이라 부르셨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전각을 떠나 나오실 때,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그 성전에서 영원히 거두어졌다. 사도들의 행적, 145.

예루살렘 입성 다음 날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집이 황폐하다고 선포하셨고, 이혼은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그 이혼은 예루살렘 입성의 날 해가 질 때 확정되었다.

예루살렘은 그분의 보살핌을 받아온 자녀였고, 온유한 아버지가 빛나간 아들을 애통해하듯, 예수께서도 사랑하시는 그 성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다. 어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어찌 너의 멸망을 내가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네 불의의 잔을 가득 채우도록 너를 그냥 보내야 하겠느냐? 한 영혼의 가치는 그것과 비교하면 온 우주도 빛을 잃을 만큼 크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한 민족 전체가 멸망하려 하고 있었다. 빠르게 서쪽으로 기우는 해가 하늘에서 사라지면, 예루살렘의 은혜의 날은 끝나게 될 터였다. 감람산 정상에서 행렬이 잠시 멈추어 서 있는 동안에도, 예루살렘이 회개하기에 아직 너무 늦지는 않았다. 그때 자비의 천사는 날개를 접고 황금 보좌에서 내려와, 공의와 급히 다가오는 심판에게 자리를 내어주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크신 사랑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분의 자비를 업신여기고 경고를 멸시했으며 이제 곧 그분의 피로 자기 손을 물들이려는 예루살렘을 위해 여전히 간구하고 있었다. 예루살렘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저무는 해의 마지막 광선이 성전과 망대와 첨탑 위에 머무는 동안, 어느 선한 천사가 그 성을 구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그 멸망을 막아 주지는 않겠는가?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며, 회개하지 않음으로 스스로를 속박의 사슬에 가두고 있던 아름답고도 불경한 그 성—그 자비의 날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었다!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신다. 날이 저물기 전에, 그리스도를 향한 또 하나의 증언이 일어난다. 예언의 과거에서 울려온 부름에 응답하여, 증언의 음성이 높이 들린다. 예루살렘이 그 부름을 듣고 그 성문으로 들어오시는 구주를 영접한다면,

아직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예수가 큰 무리와 함께 도시로 다가오고 있다는 보고가 전해진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할 마음이 없다. 그들은 두려움에 그를 맞으러 나가, 군중을 흩어지게 하려 한다. 행렬이 올리브 산을 내려가려 할 때, 지도자들이 행렬을 가로막는다. 그들은 왜 그렇게 소란스러운 환호가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묻는다. 그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묻자, 영감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그 질문에 대답한다. 그들은 유려한 어조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을 되풀이하여 인용한다:

아담이 너에게 말해 줄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이는 여자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그가 너에게 말해 줄 것이다. '살렘 왕 멜기세덱', 평강의 왕이다. 창세기 14:18.

야곱은 너에게 말해 줄 것이다. 그는 유다 지파의 실로다.

이사야는 너희에게 '임마누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사야 7:14; 9:6.

예레미야는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다윗의 가지, '우리의 의이신 주'. 예레미야 23:6.

다니엘이 당신에게 그가 메시아라고 말할 것입니다.

"호세아는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그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기념이라.' 호세아 12:5."

세례 요한은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1:29.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셨다. 마태복음 3:17.

그의 제자들인 우리는 선포한다: 이분은 예수, 메시아, 생명의 군주, 세상의 구속자이시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의 우두머리도 그분을 시인하며 말한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가복음 1:24. 시대의 소망, 577-579.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의 역사는 밀러주의 시대의 한밤중 소리의 역사를 예표했다. 화이트 자매의 글에 따르면, 그 입성이 시작될 때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이어 그리스도께서는 멈춰 서서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다. 그 후 그분은 입성을 계속하셨고, 이어 유대 지도자들과 마주하게 된다. 나는 이 이야기의 몇 가지 특성을 분리해 살펴봄으로써, 밀러주의자들의 역사에서 반복되는 이정표들을 식별하고자 한다. 그러나 먼저 시작과 끝에 대해 한 가지를 짚고 싶다. 우리가 방금 화이트 자매에게서 인용한 부분은 한 장의 끝에 해당하며, 다음 장의 서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개선 행차하신 것은, 그분이 권세와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실 일을, 천사들의 승리와 성도들의 기쁨 가운데 있을 그때의 희미한 예표였다. 그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되시다 하고 말할 때까지 너희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3:39. 예언적 환상 가운데 스가라는 그 최후의 승리의 날을 보았고, 또한 초림 때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자들의 최후의 운명도 보았다: '그들이 찌른 나를 바라볼 것이요, 사람이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애통하며, 사람이 맏아들을 위하여 쓰라려하듯 그를 위하여 크게 쓰라려하리라.' 스가라 12:10. 그리스도께서 그 성을 보시고 우셨을 때, 바로 이 장면을 내다보신 것이다. 예루살렘의 일시적 파멸 속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에 대한 죄를 진 그 백성의 최종적 멸망을 보셨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를 보았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보지 못했다. 그들은 아직 이스라엘의 참된 상태를 이해하지 못했고, 예루살렘에 임할 보응도 깨닫지 못했다. 이 점을 그리스도께서 의미심장한 실물 교훈을 통해 그들에게 밝혀 주셨다.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호소는 헛수고로 돌아갔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무리 가운데 메아리친 과거의 예언적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을 영감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분노와 놀라움 속에서 백성들을 침묵시키려 했다. 무리 가운데는 로마 군관들도 있었고, 예수의 원수들은 그들에게 예수를 반란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했다. 그들은 그가 곧 성전을 장악하고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군림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시대의 소망, 580.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았던 요점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승리로 입성하신 사건이 밀러주의 역사에서의 '한밤중의 외침'뿐 아니라 세상의 종말도 예표한다는 것이다. 이는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기 시작 시점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한 천년기 끝에 새 예루살렘과 함께 다시 오심과도 관련되어 있다. 또한 그의 재림 때 악인들의 죽음과, 천년기 끝에 있을 그들의 최후 심판과도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 단락의 서두는 이렇게 말한다.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호소는 헛되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무리가 과거의 예언적 음성을 메아리치듯 되풀이하는 것을 들었지만, 그것을 영감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지막 호소는 헛되었고, 그 호소는 '과거의 예언적 음성'으로 제시되었다. 그리스도 당시의 무리들은 그들의 마지막 호소를 거절했는데, 이는 그들이 예레미야의 옛 길로 돌아가라는 권면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줄에 줄을 더하는 방법론도 거부했으니,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여러 증언을 한데 모아 줄에 줄을 더하듯 답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시작하실 때, 그분은 가는 도중에 멈추신다. 이는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타실 나귀를 마련함으로써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분은 어떤 동물도 타 보신 적이 없었고, 그 동물은 사람을 태워 본 적이 없었다. 이 이치는 그것이 기적임을 드러낸다. 어떤 동물이 처음부터 사람을 순순히 태우겠는가? 또한 번도 사람을 태워 본 적이 없는 나귀를 어떻게 다루며 탈 수 있겠는가?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와 함께 제물을 수레에 싣고, 둘 다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고 있던 두 암소를 멩에 메워 끌게 했는데, 그 암소들이 수레를 끌어 본 적도 없었음에도 곧바로 송아지들을 떠나 히브리인들에게 언약궤를 돌려보내려 길을 떠났던 때와 비슷하다.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고, 다윗이 마침내 그것을 예루살렘에 들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개선 입성을 예표했다.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자 사람들은 자기들의 겹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마태복음 21:9) 지도자들은 반발하며 예수께 군중을 잠잠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계속 나아갔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로 대표되는 잃어버린 인류를 위하여 멈추어 눈물을 흘리셨다. 이어 행렬이 다시 진행되자 지도자들이 다시 개입하여 예수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언자들의 증언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대답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역사에는, 열 처녀의 비유로 묘사된 예언적 흐름에서 첫 번째 실망을 표시하는 사건으로서의 나사로의 부활과, 다윗의 예루살렘 개선 입성의 흐름에서 웃사가 언약궤를 만진 사건이 앞서 있었다. 첫 번째 실망은 지체의 때와 연관되며, 그리스도께서는 처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체하셨고, 마찬가지로 다윗도 훗날 그것을 다시 가져올 때까지 웃사가 죽은 곳에 언약궤를 남겨둔 채 지체하였다. 나사로는 죽었고, 그 후에 부활하였다. 그 후 예수께서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의 나귀를 이끈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다.

밀러파 역사에서 둘째 천사는 1844년 4월 19일 첫 번째 실망 때에 임했으며, 이는 기다림의 때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사무엘 스노는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를 점진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 메시지의 점진적 전개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으로 상징된다. 또한 스노의 사역의 전개는 언약궤의 여정, 곧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떠나 수레에 실려, 웃사를 거쳐,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른 것으로도 상징된다.

그 입장은 이렇게 전개된다: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에게 군중을 잠잠하게 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선포로 시작하고, 이어 그리스도께서 우시며, 완고한 지도자들이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제자들의 선포가 뒤따른다. 완고한 지도자들의 첫 반응을 불러일으킨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영감의 발현은, 제자들이 과거의 수많은 예언적 증언을 '조목조목' 제시할 때 그들에 의해 반복된다. 그날 해가 질 때,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혼을 선고받았다.

그 기록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임할 보응"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예루살렘에 임할" 그 "보응"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실물 교훈"으로 제시되었다. 그 중요한 실물 교훈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었다. 제자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파괴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가르치신 무화과나무에 관한 비유로도 설명되었다.

그 경고는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다. 자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나무를 저주하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로 서 있다. 아무도 다른 이들을 섬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법을 실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자비롭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여기는 이들 중 일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계획하고 궁리한다. 그들은 오직 자신만을 기준으로 행동한다. 그들에게 시간은 자기 것을 모을 수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다. 삶의 모든 일에서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그들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섬긴다.

하나님은 이타적인 섬김이 반드시 필요한 세상에서 살도록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동료 인간을 돕도록 의도하셨다. 그러나 자아가 너무 커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그들은 사람들과의 교감이 없다. 이처럼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온갖 걸치레를 했으나 열매가 없던 무화과나무와 같다. 그들은 예배의 형식을 지키지만, 회개도 믿음도 없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한다고 하나, 순종이 없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무화과나무에 내리신 선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헛된 자랑이 그분의 눈에 얼마나 가증한지 드러내셨다. 그분은 공공연한 죄인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면서도 그분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보다 덜 죄가 있다고 선언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기 전에 하신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시며 가르치신 교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시대의 소망, 584.

지도자들과의 마지막 대면 후 예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려고 물러나셨고, 아침에 무화과나무 곁을 지나실 때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아직 익은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다. 예루살렘 주변의 고지대에서는 참으로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그 과수원에서는 한 그루가 다른 모든 나무들보다 앞서 있는 듯했다. 이미 잎이 무성했다. 무화과나무는 잎이 펼쳐지기 전에 열매가 먼저 맺혀 나타나는 것이 특성이다. 그러므로 잎이 무성한 이 나무는 잘 자란 열매를 기대하게 했다. 그러나 그 겉모습은 사람을 속였다. 가장 낮은 가지에서 가장 높은 잔가지까지 그 가지들을 살펴보시니, 예수께서는 '앞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셨다. 그것은 걸치레뿐인 무성한 앞사귀 덩어리일 뿐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향해 시들게 하는 저주를 선언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서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다음 날 아침, 구주와 제자들이 다시 성으로 가는 길에, 말라버린 가지들과 축 늘어진 앞사귀가 그들의 눈길을 끌었다. "선생님,"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소서, 주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버렸나이다."

그리스도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일은 제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들에게 그것은 그분의 평소 하시는 일과는 달라 보였다. 그들은 자주 그분이 세상을 정죄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오셨다고 선언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인자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하러 왔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누가복음 9:56. 그분의 놀라운 일들은 언제나 회복을 위한 것이었고, 결코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제자들은 그분을 오직 회복하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다. 이 행위는 예외적이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의문을 품었다.

하나님은 '공허를 기뻐하신다.'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미가 7:18; 에스겔 33:11. 그분께 멸망의 일과 심판을 선포하는 일은 '이상한 일'이다. 이사야 28:21. 그러나 그분은 공허와 사랑으로 미래의 베일을 거두시고, 죄의 길이 낳을 결과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신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행동으로 보여 주신 비유였다. 그 열매 없는 나무는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걸만 번지르한 잎사귀를 뽐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 민족을 상징했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과 그 확실성을 분명히 알고자 하셨다. 이를 위해 그분은 그 나무에 도덕적 성격을 부여하시고, 신적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셨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고백하며 다른 모든 민족과 뚜렷이 구별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아 왔고, 다른 어떤 민족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대한 사랑과 이익에 대한 탐욕으로 부패하였다. 그들은 지식을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요구를 알지 못했고, 위선으로 가득했다. 열매 없는 나무처럼 그들은 허식적인 가치를 높이 뻗어 걸으로는 무성하고 보기에 아름다웠으나, 열매는 없고 '잎사귀뿐'이었다. 장엄한 성전과 거룩한 제단, 관모를 쓴 제사장들과 인상적인 의식을 갖춘 유대교는 걸보기에 참으로 훌륭했으나, 겸손과 사랑과 자비는 부족했다. 시대의 소망, 581, 582.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며 시작했고, 지금 그 질문들에 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살아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9/11에 시작되었는가? 성경적인 살아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방금 제시한 예언의 몇 가지 줄기는 산 자들의 심판에 대한 성경적 증거들이다. 그 예언의 줄기들은 심판의 단순한 'ABC'를 훨씬 넘어서는 것들을 다루지만, 우리는 먼저 9/11과 산 자들의 심판에 관한 질문들부터 답하고 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기를,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앉으셨다. 그의 의복은 눈과 같이 희고, 그의 머리털은 순양털 같았으며,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이었다. 불의 강이 그 앞에서 흘러나왔고, 천천은 그를 섬기며 만만은 그 앞에 서 있었고,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열렸다.'" 다니엘 7:9, 10, R.V.

이와 같이 선지자의 환상 속에, 온 땅의 재판장 앞에서 사람들의 품성과 생애가 심사되고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어질, 크고 엄숙한 날이 제시되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시편 기자가 말한다. '산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계를 조성하시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90:2.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모든 율법의 원천이신 그분께서 심판을 주재하신다.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이 시종과 증인으로서,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에 달하여, 이 위대한 심판정에 배석한다.

'보라,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가까이 인도되니라.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어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가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권세이니라.' 다니엘 7:13, 14. 여기에서 묘사된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분의 지상 재림이 아니다. 그분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기 위해 하늘에서 옛적부터 계신 이께 나아가시는데, 그것들은 그분이 중보자의 사역을 마치실 때 그분께 주어질 것이다. 1844년에 2300일이 끝날 때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것은 지상으로의 그분의 재림이 아니라 바로 이 오심이다. 하늘의 천사들의 수행을 받으시며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어 인류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분 봉사의 마지막 사역에 착수하시니, 곧 조사 심판의 일을 행하시고 그 혜택을 받을 자로 드러난 모든 이를 위하여 속죄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표상적인 성소 봉사에서, 자복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속죄제물의 피를 통해 그 죄가 성소로 전가된 사람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하였다. 그러므로 최종 속죄와 조사 심판의 위대한 날에도 심리의 대상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뿐이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구별된 별개의 사업이며, 더 뒤의 시기에 이루어진다.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리라. 만일 먼저 우리에게서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베드로전서 4:17.

하늘에 있는 기록책들, 곧 그 안에 사람들의 이름과 행위가 등재되어 있는 책들이 심판의 판결을 결정한다. 선지자 다니엘은 이렇게 말한다.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펴졌다." 같은 장면을 묘사하며 계시록의 기자는 덧붙인다. "또 다른 책이 펴지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요한계시록 20:12.

생명책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들어온 모든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20. 바울은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두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한다. 빌립보서 4:3. 다니엘은 '이전에 없던 환난의 때'를 내다보며, 하나님의 백성, 곧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계시자는 이름이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다. 다니엘 12:1; 요한계시록 21:27.

'기념책'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의 선한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 말라기 3:16. 그들의 믿음의 말과 사랑의 행위가 하늘에 기록된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며 이를 언급한다: "내 하나님이며, ...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행한 나의 선한 일을 지워 버리지 마옵소서." 느헤미야 13:14.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모든 의로운 행위가 영원히 기념된다. 거기에는 물리친 모든 유혹, 이겨낸 모든 악, 따뜻한 동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충실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견딘 모든 희생의 행위와 모든 고통과 슬픔도 기록된다. 시편 기자는 말한다: "주께서 나의 방황을 헤아리시나이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56:8.

사람들의 죄에 대한 기록도 있다. '하나님께서 선하든 악하든 모든 은밀한 것과 함께 모든 행위를 심판에 부치시리라.' '사람들이 하는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해서도 심판의 날에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전도서 12:14; 마태복음 12:36, 37. 비밀스러운 목적과 동기는 오류 없는 기록부에 나타난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4:5. '보라, 그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나니, ...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이 함께 있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사야 65:6, 7.

모든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심사를 받고, 충성했는지 불충했는지가 기록된다. 하늘의 책에 있는 각 이름 옆에는, 무시무시할 만큼 정확하게, 모든 잘못된 말, 모든 이기적인 행위, 모든 이행하지 않은 의무, 모든 은밀한 죄, 그리고 모든 교묘한 가장까지 기록되어 있다. 하늘에서 온 경고나 책망을 소홀히 한 것, 허비한 순간들,

활용하지 못한 기회들, 선을 위해서든 악을 위해서든 끼친 영향과 그로 인한 광범위한 결과까지, 이 모든 것이 기록하는 천사에 의해 빠짐없이 기록된다.

하나님의 율법은 심판에서 사람들의 품성과 삶이 시험받을 기준이다. 지혜자는 말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심판으로 끌어내실 것이다.' 전도서 12:13, 14. 사도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권면한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야고보서 2:12.

심판에서 '합당하다고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김을 받은 자들은 ... 천사들과 같으며, 부활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누가복음 20:35, 36. 또 그분은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선언하셨다. 요한복음 5:29. 의인으로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합당하다고 여김을 받는 그 심판이 끝난 후까지는 부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록이 검토되고 그들의 사안이 판결될 때, 그들은 심판대에 몸소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대언자로 나타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실 것이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1.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9:24; 7:25.

기록책들이 심판에서 펼쳐질 때, 예수를 믿은 모든 이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심사된다. 땅에서 처음 살았던 이들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변호자께서는 각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사건을 차례차례 제시하시고, 마지막에는 현재 살아 있는 자들로 마무리하신다. 모든 이름이 호명되고, 모든 사안이 면밀히 조사된다. 이름들은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거절되기도 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도 용서받지도 못한 죄가 기록책에 남아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 기록은 하나님의 기억책에서 삭제될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선언하셨다: '내게 죄를 지은 자는 누구든지 내가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출애굽기 32:33. 또 선지자 에스겔은 말한다: '의인이 그의 의에서 돌이켜 불의를 행하면, ... 그가 행한 모든 의는 언급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18:24. 위대한 논쟁, 479-483.

이 시리즈의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이어가며 제기된 질문들에 답하겠습니다.